

# 클린스만호,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숙원 푼다

내년 1월 2일부터 UAE 에서 해외 전지훈련  
손흥민·황희찬 “소속팀서 골 사냥 하고 갈게요”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의 '핵심 공격 자원'인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황소' 황희찬(울버햄프턴)이 화려한 연말 골 사냥에 집중한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12월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9·20라운드를 치른 뒤 내년 1월 2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대비 해외 전지훈련을 시작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한다.

클린스만호의 '캡틴' 손흥민은 한국시간 29일 오전 4시 30분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과 19라운드를 치르고, 31일 오후 11시 본머스과 20라운드를 펼친다. 황희찬은 한국시간 28일 오전 4시 30분 브렌트퍼드, 31일 오전 0시 에버턴과 각각 19·20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몰아치기 달인'은 바로 나!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골 감각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 몰아치기 득점에 능하다는 것이다.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데뷔한 2015-2016시즌 EPL 무대에서 1차례 2경기 연속골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9시즌 동안 매 시즌 정규리그에서 '연속골 행진'을 펼쳤다.

2020-2021시즌 정규리그에서는 4~6라운드에서 3경기 연속골(4골)을 터뜨렸고, 이후 연가페 치러진 29라운드와 34, 35라운드에서 두 번째 3경기 연속골을 맞았다.

또 2021-2022시즌 정규리그에서는 한 차례 4경기 연속골과 두 차례 3경기 연속골을 쏟아내며 당당히 득점왕(23골)을 차지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으로 고전했던 지난 시즌에도 두 차례 2경기 연속골을 작성했고, 이번 시즌에도 두 차례 2경기 연속골을 맞으며 리그 11호 골을 쌓아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돌파했다.

손흥민은 지난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치러진 에버턴과 EPL 18라운드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성탄 선물'을 안겨줬다.

4위 토트넘은 9위 브라이턴, 12위 본머스와 잇달아 대결한다. 두 팀은 손흥민이 모두 골 맛을 봤던 팀이다. 손흥민은 브라이턴을 상대로 통산 2골 2도움을 기록했고, 본머스와 만나서는 무려 6골 2도움으로 펼칠 날았다.

◇'첫 EPL 두 자릿수 득점 도전은 계속된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18라운드까지 8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절정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특히 황희찬은 7~11라운드에서는 정규리그 두 번째 2경기 연속골을 포함해 무려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3골 2도움)를 달성하는 특급 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15라운드까지 8골을 쏘아 올린 황희찬은 팀 내 득점 선두로 올라섰다. 하지만 황희찬은 16~18라운드에서 3경기 연속 침묵하며 득점 감각을 되살리지 못하는 게 아쉽다.

황희찬은 28일 브렌트퍼드, 31일 에버턴과 잇달아 만난다. 두 팀 역시 황희찬이 골맛을 봤던 팀이다.

지난 시즌 중반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을 다쳐 고생했던 황희찬은 27라운드 뉴캐슬전에서 리그 마수걸이 득점포를 가동한 뒤 31라운드 브렌트퍼드전과 37라운드 에버턴전에서 각각 득점에 성공했다. 황희찬은 올해 남은 두 경기에서 EPL 첫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뒤 클린스만호에 합류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다. /연합뉴스

▶클린스만호가 아시안컵에 대비해 26일 소집훈련에 돌입했다. 사진은 최근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진행된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앞두고 손흥민 등이 훈련하는 모습. /연합뉴스



## 대표팀 서울서 실내 훈련...내달 2일 아부다비 현지로

클린스만호가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숙원을 풀기 위한 여정에 들어갔다.

위트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 소집돼 2시간 정도 훈련했다.

K리그 일정을 끝낸 국내파 선수들과 전반기 일정을 마친 해외파 선수들을 포함해 16명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대비, 이날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국내 소집 훈련에 참여한다.

이번 소집 훈련에서는 야외 훈련 없이 실내에서

체력 단련 위주로 컨디션 조절을 한다.

훈련 첫날인 이날도 선수들은 호텔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공 없이 여유롭게 몸을 풀고 각자 몸 상태에 맞춰 훈련을 소화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훈련 내용은 자율에 맡기고 우리 벽 너머에서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대표팀 관계자는 "선수들이 비교적 지켜보는 눈이 적은 곳에서 부담 없이,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몸을 흘렸다"고 전했다.

이번 국내 소집훈련에서는 조원우(울산), 송범

근(쇼난 벨마레·이상 골키퍼),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 설영우(이상 울산), 김진수(전북), 이기제(수원), 김주성(서울·이상 수비수), 이순민(광주), 이재성(마인츠), 황인범(츠르베나 즈베즈다), 문선민·박진섭(이상 전북), 정우영(슈투트가르트 이상 미드필더), 조규성(미트윌란·공격수)이 '몸만들기'를 한다.

이 중 15명은 이날부터 훈련했고, 황인범만 29일 쯔함류할 예정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28일 용산 CGV에서 아시안컵

에 나설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 이어 클린스만호 본진은 다음 달 2일 전지훈련지인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나 아부다비에서 현지 적응을 위한 전지훈련에 돌입한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김민재(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파 핵심 선수들은 아부다비에서 클린스만호에 합류,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

대표팀은 1월 6일 아부다비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최종 모의고사를 치른다.

그간 아시안컵에서 중동 팀의 일격에 허무하게 탈락한 경험이 많은 한국이다. 이라크전은 중동의 '모래바람'에 대비한 '예방주사' 차원이다.

이라크는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함께 조별

리그 D조에 속했다. 한국은 '가상의 일본'으로 여기고 평가전에 나선다.

클린스만호는 10일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에 입성한다.

조별리그에서 E조에 속한 한국은 2024년 1월 15일 오후 8시 30분 바레인과의 1차전을 시작으로 1월 20일 오후 8시 30분 요르단, 1월 25일 오후 8시 30분 말레이시아와 차례로 대결한다.

한국은 1956년 홍콩에서 열린 첫 대회와 1960년 한국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서 아시안컵을 2연패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60년 넘게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아시아 최강'을 자처하면서도 준우승만 4회에 그치며 늘 자존심을 구겼다. /연합뉴스



## 포수 신범수, SSG로 이적 "KIA 팬에게 죄송하고 감사"

"열심히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 SSG랜더스에서 새출발을 하게 된 포수 신범수(사진)가 "잘하겠다"며 2024 시즌 각오를 밝혔다.

신범수는 광주 대성초-동성중-동성고를 거쳐 2016년 KIA 유니폼을 입은 '광주의 아들'이다. 야무진 방망이로 동성고 시절 일찍부터 안방자리를 차지했던 그는 프로선수의 꿈도 고향에서 이뤘다.

2018시즌 프로 데뷔에 성공한 신범수는 올 시즌 36경기를 뛰는 등 고향팀 KIA에서 96경기를 소화했다. 남은 기록은 SSG에서 쌓게 됐다.

신범수는 지난 11월 22일 진행된 2024 KBO 2차 드래프트에서 SSG의 지명을 받으면서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됐다.

드래프트 당시 일본 오키나와에서 치러진 마무리 캠프에 참가하고 있었던 신범수는 훈련 도중 소식을 들었다.

신범수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 뭔가 마음이 그랬다. 준비는 했는데 운동을 하다가 불러가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는 당황하기도 했는데 선배들이랑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잘 훈련하다가 광주에 왔다"고 이야기했다.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맞게 된

2024시즌. 걱정보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신범수는 "사실 걱정보다는 기대와 설렘이 더 크다. SSG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살짝 겁이 났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좋은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1월부터 가서 적응하려고 한다"며 "나를 좋게 보셔서 데려갔다고 생각하니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도 하지만 잘하려고 한다. 잘하기 위해서 준비 잘하겠다. 운동 안 쉬고 (최)원준이랑 웨이트 트레이닝 이랑 하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출발에 대한 기대감 뒤에는 KIA 팬들에 대한 미안함도 남아있다.

갑작스러운 이적으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던 신범수는 광주일보를 통해 응원을 보내준 KIA 팬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다.

신범수는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팬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애정 있게 해주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좋은 모습으로 광주에서 뵈겠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